

■ 러시아의 외국인 투자 동향

- 러시아의 경제 유력지 “베도모스찌”는 “Ernst and Young”이 지난 5월 외국계 기업 전문 경영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가별 투자 매력도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러시아가 외국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시장으로 간주되고 있다고 보도하였음. 이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는 투자 매력도 부문에서 18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음.
- “Ernst and Young”은 유럽, 미국, 아시아의 총 513 기업을 대상으로 «European Investment Review»를 실시하였음. 조사에 참가한 업체는 연간 수익이 1억5천만 유로 수준부터 15억 유로 이상의 다국적 기업까지 다양한 기업이 참여하였음.
- 조사결과 약 9%에 달하는 응답자들이 러시아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특히, 독일 기업인들의 경우 11%의 응답자가 對러 투자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타 국가에 비해 좀 더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음. 결과적으로 이번 조사결과 외국인 투자자들은 최근 러시아의 신속한 발전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당수 기업들이 러시아에서의 새로운 사업 확장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었음.
- 러시아의 국가 투자 매력도가 상승한 주요 원인으로 전문가들은 러시아 시장 자체의 시장성과 더불어 러시아의 지리적 위치가 이점으로 작용한 것으로 평가하였음. 외국인 투자자들은 러시아를 인접 CIS(독립국가 연합) 국가 및 동유럽 그리고 아시아 시장으로의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러시아의 전문가들은 일반적으로 이러한 의견에 동의하며 향후 5년 이내에 對러 투자에 참여한 외국인 투자자들이 성공적인 사업발전과 좋은 투자 결과를 획득할 수 있을 것이라 장담하고 있음. 더불어 이들은 러시아 시장이 중국과는 다르게 생산시장과 판매 시장 양쪽에 있어 매력적인 시장이라고 의견을 피력하였음.
- 실제로 2003년 러시아 경제 부문에 투자된 총 외국인 투자 규모는 296억9,9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50%의 증가율을 보였음. 이중 FDI (외국인 직접 투자)의 경우 전년 대비 69.4% 증가한 67억8,100만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자본 투자는 31% 증가한 22억4,300만 달러, 대출형식 21억600만 달러, 합작회사 형태의 투자가 24억 1,200만 달러로 전년대비 배에 달하는 성장을 기록하였음.
- 2003년 러시아의 전체 산업 부문에만 투자된 외국인 투자는 약 123억 300만불에 달하였으며, 산업별 투자 규모를 살펴보면 전기 에너지 부문 2,700만 달러, 석유·에너지 부문 53억 500만 달러, 철금속 부문 14억 8,700만 달러, 비철 금속 부문 20억 700만 달러, 화학 및 석유화학 부문 5억300만 달러, 기계 제작 및 금속 부문 7억6,900만 달러, 임업 및 제지 부문 5억 9,900만 달러, 식품가공 부문 10억 2,400만 달러를 기록하였음.
- 아울러 건설 부문 2억 5,500만 달러, 농업 부문 1억 100만 달러, 교통부문 4억 2백만 달러, 통신부문 6억 8,100만 달러, 무역 및 공공 서비스 부문에 15억 1,600만 달러가 투자되었음.

- 2004년 러시아로 유입된 외국인 투자는 급속도로 하락하여 동년 1/4분기의 외국인 총 투자규모는 1.5% 하락한 61억 7,100만 달러에 그쳤으나, 이와 대조적으로 FDI는 작년 동기 대비 42.8% 증가한 14억 7,600만 달러를 기록하였음.
- 이러한 외국인 직접투자 증가세는 하반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는 외국계 기업이 러시아에서 보다 활발한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는 많은 징후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임.
- 독일의 Hochland社は 모스크바 근교의 자사 공장을 통해 올해 4월에 첫 생산을 시작하였음. 이 업체는 생산 시설을 갖추기 위해 지금까지 약 3,500만 유로에 달하는 투자를 하였으며 연간 약 10,000톤의 가공 크림 치즈를 생산할 예정임. 현재 러시아 현지 공장의 생산 능력은 총 20,000톤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미국 굴지의 알루미늄 업체인 Alcoa社 역시 조만간 러시아에서 사업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인데, Alcoa社は 러시아측 Rusal社측과 SAMARA METALLURGY WORKS 및 Belokalitvensky Metallurgy Complex Works를 3,000~4,000만 달러 선에서 구입하기 위해 협상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음. (SAMARA METALLURGY WORKS는 러시아내 대규모 알루미늄 생산 및 수출 업체중 하나로 국내 생산의 40%에 달하는 알루미늄 반제품을 생산. 총 생산 능력은 450,000톤, 현재 연간 생산량은 190,000톤에 달함. Belokalitvensky Metallurgy Complex Works는 알루미늄 롤을 생산하는 업체로 총 생산능력 120,000톤, 현재 연간 생산량은 40,000톤에 달함.)
- 핀란드의 타이어 제조회사 Nokian Tyres는 올해 5월 브제볼리즈스크(쌍뜨 빼제르부르크 근교)에 생산 공장을 건립하기 위해 향후 2년 간 5,200만 유로에 달하는 자금을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음. Nokian Tyres社の 러시아 현지 공장은 내년 봄에 완공될 예정으로 공장 완성 이후 생산 라인 설치가 끝나면 향후 3년 안에 약 350만개의 타이어를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독일계 회사들 사이에서도 러시아로의 투자 바람이 불고 있는데, Knauf社は 전자재 생산을 위해 러시아 이르쿠츠크 지방에 약 1억 5,000만 달러에 달하는 현지 공장 건립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음.
- 다른 독일 그룹 Bosch-Siemens Hausgerator社 역시 냉장고 생산 공장을 레닌그라드 지역에 건립하기 위한 가능성 여부를 타진하고 있다고 밝혔음.
- 마지막으로 일본의 자동차 기업 TOYOTA는 2008년까지 러시아에서 코롤라와 캄리 모델 생산을 고려하고 있음. 일부 보도 자료에 따르면 도요타社は 현재 가장 적합한 공장 설립 장소를 물색하고 있으며 니즈니 노보그라드 지역과 모스크바 외곽 지역이 주요 후보지로 논의되고 있다고 함. 도요타의 현지 공장 건립 계획 규모는 약 1억 달러, 연간 생산 능력은 15,000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아직 이와 같은 계획에 관해 도요타 측의 공식 확인은 없었으나 전문가들은 도요타의 현지공장 진출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으며 도요타가 러시아에 현지 공장을 건립한다면 도요타 자동차의 전체 판매 대수가 50,000대를 초과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음. 실제로 통계수치를 살펴볼 때 도요타의 연간 판매실적이 25,600대 수준이었으나 2003년 상반기 판매 실적이 21,000대에 달해 판매 상승률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 이러한 시장 점유율 유지를 위해서라도 투자가 현실화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문의처 : 모스크바무역관 이금하 kumhalee@kotra.or.kr)